

# 오미크론 우세종 된 광주·전남 1주일째 300명대 확진

### 목포·무안 확진자 폭증... 여수 선원 오미크론 감염 동부권 확산 우려 광주, 요양병원 등서 추가 확진자 쏟아져... 전국 신규확진 4천명대

코로나 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광주·전남에서 우세종으로 부리를 내리면서 신규 확진자가 좀처럼 300명대 아래로 꺾이지 않고 있다. 전파력에서 델타 등 기존 변이 바이러스를 압도하는 탓에 광주와 전남지역 요양병원, 학교, 학원, 공장, 유흥시설, 선원 밀집지 등 다중시설에서의 집단 감염도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하루 동안 전남에서는 17개 시군에서 139명이 신규 확진됐다. 목표 57명, 무안 26명, 영암 14명 등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 중인 전남 서남권에 97명의 확진자가 집중됐다. 다음으로는 순천 10명, 나주 6명, 광양 5명, 여수 4명 등이다.

목포에선 어린이집에서 8명이 집단감염됐고, 나머지 확진자들은 대부분 기존 확진자들과 동선이 겹치거나 역학관계에 있다.

방역당국은 특히 여수에서 발생한 확진자 4명의 감염경로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역학조사 결과 이들은 목포에 거주하는 선장이 여수를 다녀간 후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됐고 격리 중 검사에서 확진됐다. 선장의 오미크론 변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확진된 선원 중 1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대적으로 확진자 발생 규모가 작았던 전남 동부권에 다수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전남도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279명 가운데

데 고령자를 포함한 모두가 위중증으로 악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최근의 오미크론발 코로나 확산세를 통제 범위에 두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남에선 이날 오후 2시까지 순천 10명, 여수 3명을 포함해 21명이 추가 확진됐다.

광주에선 지난 17일 하루 동안 184명이 신규 확진됐으며, 18일 오후 2시 현재 137명이 추가 확진됐다. 광주에선 최근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기존 집단 감염과 관련해 추가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총 184명이 발생한 지난 17일 기준 동구 요양병원 관련 190명, 광산구 요양시설 관련 129명 등 누적 확진자가 늘어났다.

전국에서는 18일 새벽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4072명이 나왔다. 국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70만102명이 됐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래 2년 만에 누적 확진자 수가 7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2일부터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4383명→4165명→4538명→4420명→4193명→3858명→472명으로 하루 평균 약 4233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감염경로는 지역발생이 3763명, 해외유입이 309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경기 1470명, 서울 684명, 인천 177명 등으로 수도권에서 총 2331명(61.9%)이 나왔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 162명, 전북 147명, 충남 140명, 경남 134명, 경북 129명, 부산 102명, 대전 101명, 강원 94명, 충북 55명, 울산 33명, 세종 21



광주 광산구 하남3지구 내 주차타워에 마련된 임시선별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검사를 받고 있다. 임시선별소는 오는 24일까지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운영한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명, 제주 2명 등 총 1432명(38.1%)이다. 지난해 12월 코로나 확진자 폭증 당시 연일 신규 확진자의 70~80%가 수도권에 집중됐으나 새해 들면서 광주·전남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비율이 눈에 띄게 올라서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정부, 방역패스 예외사유 확대방안 이번주 발표 학원·대형마트 등 방역패스 해제 이어 방역정책 개선·보완

정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 주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질병관리청이 전문가들과 함께(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급중 중 결정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예외 사유가 있다"며 "예외 사유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학원,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이날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외 사유를 확대하고 과태료 등 처벌에 대한 정책도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사유로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 인정된다.

이 중 중대한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이다. 접종 금기는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가 발생한 이력이 있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다.

앞서 질병청은 중대한 이상반응에 길항제 증후군과 뇌경맥동 혈전증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코로나19의 우세종이 되는 상황도 다가가고 있어 방역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외국 선형 사례를 보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확진자 수가 10배에서 수십 배까지 증가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3주 동안 오미크론이 90% 이상으로 델타를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확진자 수 증가를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최대한 고령층과 고위험자를 중심으로 확진자 증가를 막고 중증 환자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보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연협뉴스

## 전남도·목포시·경찰 합동 오미크론 확산방지 특별점검

전남도가 목포 등 서남부권 오미크론 확산 원천 차단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12일간 야간 특별점검을 펼친다.

이번 점검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갑작스러운 확산으로 목포 등을 중심으로 도내 확진자가 150명을 상회하는 등 증가세가 지속해나오는 것이다.

전남도, 목포시, 경찰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점검은 외국인인 주로 이용하는 유흥시설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마사지업소, 풀라텍 등 취약시설에 집중한다. 야간영업이 주로 이뤄져 방역수칙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는 사업장을 집중 관리해 감염원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사적 모임 제한 및 영업 제한시간 준수, 출입자 명부(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다.

전남도 관계자는 "방역수칙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취약시설 위주의 면밀한 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도민께서도 지금의 확산세를 멈추고 건강하게 일상을 돌아가도록 잠시 멈춤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귀농귀어 가구수 전국 1위·우수지자체 대상 3회 수상 전남도, 맞춤형 귀농어귀촌 유치 성과 '톡톡'

전남도가 그동안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귀농어귀촌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전국 귀농·귀어가구 전국 1위 달성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2013년 통계청 귀농어귀촌인 통계발표 이래 최초로 2020년 2347가구(3108명)가 전남으로 귀농해 '귀농 1번지'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또 2021년 전국 귀농어귀촌 박람회서 우수지자체 대상 3회 수상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귀농귀촌 종합평가에서는 장성군이 전국 1위, 고흥군이 4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전남도가 2018년 광역단위 최초로 인구전담부서인 '인구정책관'을 신설해 전남도만의 차별화된 귀농어귀촌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한 노력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2019년 전국 최초 도시민 대상 '전남에서 먼저 살아가기' 사업을 추진한 결과 1591명의 참가

자 중 252명이 전남으로 전입했다. 이를 농림축산식품부가 벤치마킹해 2021년 '농촌에서 살아가기'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2020년 2월에는 수도권 도시민 유치를 위해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 '귀농산어촌 종합지원 서울센터'를 설치, 단계별 귀농어귀촌 교육과 '귀농TIME'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예비 귀농어귀촌인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2021년 전남 귀농어귀촌 온라인 박람회를 열어 도시민 방문객 3만3871명 대상 시·군·별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귀농어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겠다"며 "이를 통해 예비 귀농어귀촌인이 성공적으로 전남에 정착하도록 함으로써 고품질,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에 활력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임아** **살니다**  
**지분환영**  
중개환영. 010-8902-7900

**제일오피스텔** **급매**  
수기동, 20층 중 8층, 33평, 코너  
시세 1억-급매 8천만원, 1/31까지  
소유자 직매. 010-3605-50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없음**  
(채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대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등 다용도 부지, 임야, 매매

-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읍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돌외벽 스톤외벽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채 조성 가능  
•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 2 전원주택용 부지와 식재된 조경수 20여년생 8종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읍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트리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종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9만원
-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 부지(주거 2종)**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희마을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공주차장 3면도로전 남향 교통요지 사장인접  
다가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1,276평) 매 9억 9천만원
- 4 임야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용달생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지 적합 매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송다수자생 생악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기주택 가능 매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유폴러스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표 김중주 010-3454-2389  
대영공인중개사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김성우(541110-XXXXXX)  
• 최후주조: 전남 담양군 봉산면 제월길 280  
피상속인 망 김성우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1년 11월 14일 1401호로 신청하여 2022년 1월 13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1월 19일  
• 상속인: 김선자(801106-XXXXXX) 세습특별자치시 도움3로 160, 401동 1903호(중촌동, 가계마을4단지)  
• 신고기간: 2022. 1. 19. ~ 2022. 3. 31.  
• 채권신고처: 상속인 김선자의 주소

**특별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박의심(380429-XXXXXX)  
• 최후주조: 목포시 백련대로337번길 23, 204동 307호(상동, 비파2차아파트)  
• 등록기준지: 전남남도 진도군 인화면 김유길 12-64  
피상속인 망 박의심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특별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1년 11월 17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1월 19일  
• 상속인: 박춘우(600615-XXXXXX) 대구 북구 대원로10길 82, 104동 1503호(대원동, 대원e-편한세상)  
• 신고기간: 2022. 1. 19. ~ 2022. 3. 31.  
• 채권신고처: 상속인 박춘우의 주소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외의 우편제출공고)  
주식회사 나눔엔터테인먼트(이하 "나눔")와 주식회사 대표이하 "윤"은(은) 2022년 1월 18일 제1차 주주총회결의로 "나눔"의 영업 중 일부인 문화예술사업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윤"이 합병하고 "나눔"은 존속하지 않기로 결의하여 2022년 1월 18일 제1차 주주총회결의로 "나눔"은 2022년 1월 18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1월 19일  
"나눔" 주식회사 나눔엔터테인먼트  
광주광역시 광산구 영동대로 706, 지하층 101호(소촌동)  
대표이사 김민태  
"윤" 주식회사 대표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홍노로 433-1  
대표이사 김민태

**분실공고**  
• 임대차계약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대로69번길 16 (각화동, 각화골드클래스) 108동 802호  
• 계약자: 강성숙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2022년 1월 19일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은 길 70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닝**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지국안내**

북구	• 동 266-1920 • 문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222-8171 • 영 571-7658 • 오 266-7601
	• 용 433-1503 • 우 433-1503
동구	• 남 673-6836 • 동 222-9054 • 동 부 225-6001
	• 총 222-9054 • 총 222-8171
남구	• 남 부 673-6836 • 백 651-1833 • 봉 673-6836
	• 송 675-6605 • 진 671-7276
서구	• 광 382-5788 • 상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은 376-7153 • 치 376-6511 • 봉 673-6511
	• 화 369-1625
광산구	• 윤 952-1687 • 월 959-1920 • 청 973-2900
	• 하 955-0451 • 광 944-0444